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설립자)의 새해인사 및 임원진 개편에 관한 보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세계경제연구원을 아끼고 성원해주신 모든 기관과 개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세계화란 세계사적 큰 물결속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를 미리 내다보며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데에 도움이 되고자, 세계경제연구원을 설립한지 어언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5여년간 쌓아온 저희 연구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와 온정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현재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비단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대변혁의 와중에 있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산업혁명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때에 지혜롭게 앞서나가는 나라와 사회만이 궁극적 승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세계경제연구원은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찾아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국가발전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맞추어 일부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선 새 이사장 겸 원장으로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영입했습니다.

전광우 박사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오랜기간 미국에서 일하다 귀국하여 포스코(POSCO) 이사회 의장, 딜로이트(Deloitte) 한국회장,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국제금융대사 및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금융정책과 기업과 금융시장 관련 실무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며 세계금융시장과 글로벌 투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함께 폭넓은 인맥을 쌓아온 글로벌 금융통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중요한 글로벌 금융·투자 뿐 아니라 모든 산업과 서비스분야에 걸쳐 세계경제연구원이 해야 할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는 세계경제연구원의 명예이사장(설립자), Chairman Emeritus (Founder)으로써 계속 연구원에 남아, 전광우 박사와 함께 세계경제연구원의 제2도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나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허심탄회한 건의와 충고는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끝으로 한번 더 새해에 여러분의 더 큰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해년 새해 아침에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설립자)

사공 일 드림
사공 일